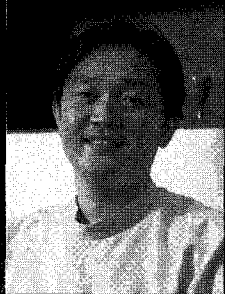


백내장(白內障)

★ 글 쓰는 순서

- ① 웨이브프론트 맞춤형 콘택트
- ② 백내장
- ③ 눈이 건강한 어린이, 눈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제언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들, 조금 귀찮을 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어서인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증상들. 하지만 이런 무관심이 쌓이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보건세계 특별기획 '전문가에게 듣는다' 그 두 번째 테마로 안과와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3개월간의 연재는 평소 소홀하게 여겼던 안과 관련 증상들, 혹은 궁금했던 치료법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편집자주>

우 리 눈에는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 하는 수정체라는 구조가 있다.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의 통과를 방해하는 안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실명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서도 2000년 한해 동안 입원환자의 진료 건수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백내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질병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치료법도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백내장의 주요 증상

주로 시력에 변화가 온다. 초기에는 물

체가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기도 하고, 햇빛에 눈이 부시고 눈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도 있다.

특이한 증상으로는 수정체의 중심부에만 혼탁해지면서 밝은 곳에서 오히려 눈이 더 침침해지는, 이른바 주맹(晝盲)현상이 있다. 수정체의 중심부 밀도가 높아지는 핵백내장에서는 근시로의 도수변화가 있어서 노안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백내장의 원인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생기는 것으로,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백내장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외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이나 또는 눈을 다쳐서 생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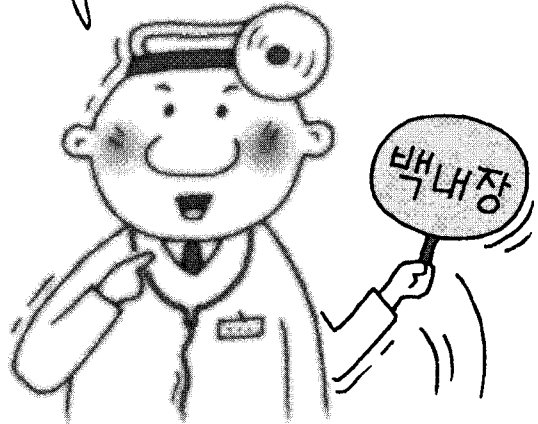
눈 속의 질환에 의해서 속발성으로 생기거나 녹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스

테로이드 점안액이나, 다른 신체질환으로 내복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

백내장의 경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며 한 사람에서도 양쪽 눈의 경과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백내장의 수술 시기는 환자의 연령, 눈의 상태, 직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백내장이 심하면 이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절개를 크게 하는 수술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교

제가 흐리게 보이신 다구요?!



그린 공보력

정시력이 0.3이하로 떨어졌다면 굳이 수술을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술 후 회복이 빨라지고 합병증이 크게 줄어든 오늘날에는 '본인이 불편을 느끼는 시기'를 '수술 적정기'라고 보고 있다.

백내장의 치료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눌 수 있다. 약물치료는 백내장의 초기에 진행을 약간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백내장을 치유하지는 못하며 특히 어느 정도 진행된 백내장에는 약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백내장의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백내장 수술은 통증과 출혈이 없고, 절개 부위가 작으며, 대부분 봉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점안마취

점안약으로 마취하기 때문에 과거 주사에 의한 마취와 달리 통증이나 마취에 따른 합병증이 거의 없다.

2) 소절개 무봉합 초음파수술

약 3mm의 작은 절개창을 만든 후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을 통해 혼탁해진 수정체 조직을 잘게 부수어 흡입해 낸다. 이때 깨끗하게 정리된 낭속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접는 연

성인공수정체의 삽입이 보편적이다. 절개창은 자연봉합(self-sealing) 되기 때문에 실로 꿰매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고 난시 유발이 거의 없이 빠르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3) 수술 후 경과

당일 수술 및 퇴원이 가능하며 수술 다음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후발성 백내장

후발성 백내장이란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남겨 놓은 후낭 부위가 혼탁해지는 것을 말한다. 백내장 수술 후 잘 보이던 눈이 다시 점차 흐려지는 경우에 후발성 백내장을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환자에서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행히 후발성 백내장은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 진료실에서 세극등검사를 받듯이 레이저 장비에 앉아서 시술하는데, 통증은 없으며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

이 글을 쓰신 강신욱 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의료원 안과전문의를 거쳐 현재 강남삼성안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미국 C-LASIK course 연수, 미국 Dallas ISRS 라식수술연수 등을 거쳤고, 국내 도입된 대부분의 기종으로 시력 교정수술만 2000여 차례 이상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yepro.co.kr)나 전화(02-2689-005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